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Part 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찌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 윤성희 선교사

▪ 불신가정에서 성장:

저는 불신가정에서 자랐고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성경에 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중 2 때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고 1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가게 된 저의 관심은 선교지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와 같이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쉽게 설명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중 2 때 우연히 국민학교 친구(목사님의 아들)가 생각이 나서 어느 주일 아침에 친구를 만나보려고 친구가 다닐 것이라고 생각한 교회를 찾아 갔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설교, 기도 등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으나, 주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아서 학교 공부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교회의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4반 (입학사진)

중고등부 담당 장로님(국민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신 내용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 먹고 추방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가서 들어본 이야기였지만 저에게는 아주 흥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장로님께서 들려 주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저만 몰랐으며 다른 학생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부산항 여객선 앞에서)



교회 고등부 (국화 전시회)

고 1 때 가을 어느 날 집에서 신앙서적(『평신도를 위한 구원론』?)을 읽던 중에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내용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죄도 없으신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박히시고 피흘리시고 죽으신 일”을 히 9: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의 의미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의 마음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느꼈습니다.

주일에는 부모님께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의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가는 도중, 부친을 길에서 만나고 교회가 가는 것이 발각된 후에는 부친이 “**한 집안에 두 종교는 절대 안된다**”고 하시면서 제가 교회에 가지 못 하게 박해(?) 하였습니다. 저의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부친과의 관계는 교회출석의 문제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주말마다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러 가고 오는 길에는 **찬 150 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를 부르면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흘리시고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교회 고등부 (성탄축하 특송)

특별히 롬 10:9-17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을 믿고, "배우면서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며,



대학교 2 학년 (대학부 하기봉사: 속초 신흥 교회팀)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선교사역의 길에서 **마 28:20** "---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지난 13 년간 선교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선교지로 감 (C 국 8/12 → L 국 3/18 → M 국 8/18): 다음에 계속---]